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41호>

2003년 11월 17일(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2 대학

이사장,
출소한 이동현군 만나다



3 대학

용인학생회장 IP충돌 문제와
대학원 총학생회 당선자 인터뷰



6 사회

학벌없는 사회 대표
홍세희씨를 만나



8 문화

40회 문학상,
20회 학술상 및 특집

총학선거, 서울-25,26일 용인-25~27일

양배움터 모두 경선으로 치러져

지난 12일(수) 서울배움터 38대 총학 생의 선거에서 두 팀이 후보 등을 뒤졌다. 기호 1번은 총학생회장 후보에 백종호(서양·네덜란드 00)군과 부총학생회장 후보에 김재동(서방·영어교과 99)군이 등록했다. 기호 2번은 총학생회장 후보에 윤종현(서양·영어 98)군과 부총학생회장 후보에 김태근(상경·경제 97)군이 등록했다. 투표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진행된다.

한편, 서양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정학생회장 후보에 소효진(화 01)과 무학생회장 후보에 이석환(독일어 00)군이 단독 등록했다. 투표는 19일(수)과 20일(목) 양일 간 진행된다.

동양대학 학생회장 후보에는 이봉호(중국어 02)군이 정학생회장 후보로 단독 등록했다. 선기는 18일(화)과 19일(수)에 진행된다.

법대 학생회장 후보로는 최유준(02)군과 박종원(00)군이 각각 등록을 했다. 투표는 26일(수)과 27일(목)에 진행된다.

사범대학 학생회장 후보로는 최성호(한국어교육 02)군이 등록했다. 투표는 26일(수)과 27일(목)에 진행된다.

사회대학 학생회장 후보에는 고현호(행정 01) 군이 등록했다. 19일(수)과 20일(목)에 투표를 한다.

상경대학 학생회장 선기는 아직 미정이다.

고성대 기자 dha827@hanmail.net



지난 14일(금) 서울배움터 복합관에서 치러진 아람과 투표 현장이다.

지난 12일, 홍 이사장 - 유복재 서울총학 면담해

홍 이사장, “제단문제 관련 교수의견 우선시 하겠다”

지난 12일(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이 종일식 이사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제단문제에 대한 입장문제를 확인해 제기된 성과제이 글났다. 이 자리에는 학생회장 이정희씨, 총임 대외부총장, 부총학생회장 강경훈(동양·중국어 98)군, 대체원 부총학생회장 청송군도 함께 참석했다.

총학생회장 유복재군은 “10일 조정회의에서 외교족과 학생족이 조정에 권리로 제대로 했다”며 교육부에서 제작한 5·31 구상방안에 대해 혼인식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혼인식 이사장은 “구상방안의 핵심인 판단만 있는 때를 것이다. 하지만 교수임의회에서 이 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또 “하네 3주제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단문제 관련 전환방안은 일적으로 기대했던 제작단원 82회(화)에서 서명한 입장문 확인하는 형식의 배포나이트는 이미 입법단 기관의 손의를 피해내나 수 있는 않았다. 운송권을 구상원이 나누어 갖자는 것도 아니고 학생의 이

포함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회의실에서 지난 10일(일) 재판관인 82회(화)원이 열린 회의실에는 총장, 교협 회장, 변해철 교수, 노조지부장 이정철씨,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 제단 사무처장 홍일식 이사장 대리, 총동문회 사무총장 최명호씨, 교육부 사학정책과, 설립자측 대표 김경철씨, 학교 변호사, 설립자측 변호사, 교육부 변호사가 모여 조정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교협회장 변해철 교수는 “제정 기여 이사장과 조정해야 하던 이사장 구성을 있어 내내 구상인들끼리의 형식적 배분이 아파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지부장 홍일식은 “제정기여자가 대로 이사 자리를 요구한다면 이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제작한 권고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12월 4일까지 권고안에 따라 합의를 봐야한다.

강경신 기자 shin18@hanmail.net

노벨 문학상은 존쿠체,

외대 문학·학술상을 바로 너!

● 시3편 이상·소설·수필
학과 평론 분야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등
● ● 2003년 12월 31일(수)
● ● 총 200만원, 각각 100만원
● ● 서울 02-961-4152
용인 031-330-4112
E-mail oedaepress@hanmail.net

● ● ●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총학 선거, 두 배로 즐기는 법

“이번에 경선이래, 너 누구 투표를 해야?”

“글쎄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좋은데 말야. 뭐가 더운 건지 도통 알 수가 있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대신 물어보습

니다. 도대체 이 후보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주위 사람들은 그에 폭넓게 평가하고 있는지 무엇하나

빼놓지 않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 어떤 외대학보 주제기획이 이 아닙니다. 주제기획은 학생들의 한해를 책임지게 하는 사람들은 사랑 짐승이 만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중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년을 예상하고 계신다면 외대학보가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 도전하는 사람들을 대해 좀 아셔야 하겠죠? 물론 한해동안 학생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 이 문제로 고민이나 나누거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축제는 축제입니다. 주제기획은 아니었습니다. 축제기획은 학생들의 한해를 책임지게 하는 사람들은 사랑 짐승이 만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중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년을 예상하면서 내걸고 있는 수많은 공약들 가운데 중점으로 추천한 사업이 무엇인지 역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번 주제기획은 여러분의 권리가 좀 더 확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동안 나와 총학생회는 이루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많은 여러분들이 외대학보를 통해 총학생회 선거를 축제로 즐기면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대학보는 여러분이 축제

를 두 배 즐기실 수 있도록 축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주제기획팀

하남석·황경진조, 대학원총학 선거당선

사이버외국어대학교가 지난 8일(토)로 정식 인사를 받았다.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언론홍보학과, e-비즈니스학과로 모두 5개학

과로 구성된 사이버외국어대학교는 내년 3월 1일 첫 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28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에서 하남석(중국학과·석사 2학기)·황경진(법학과·석사 2학기)과 당선됐다.

▶ 관련기사 3면

사이버외국어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며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서류심사형으로 학생들을 뽑는다.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가 학생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시장이 된다.

경쟁률은 현대·한국·한양·한성 등에서 시행되는 가상 대학의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경쟁률을 다룬다. 그동안 나와 총학생회는 이루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많은 여러분들이 외대학보를 통해 총학생회 선거를 축제로 즐기면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사이버외국어대학교 직원 강병진씨는 “영리하고 많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평생교수를 기자로 차려온 학생들은 노동자에게 헌신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rufs.ac.kr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의자 학생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 서울과 용인배움터 모두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했다. 지난 9일(일)과 12일(수)에 용인과 서울배움터에서 각각 총학생회 선거후보자를 마감한 결과, 양 배움터 모두 두 조각 입후보로 선선을 치르게 됐다.

지난 몇 년간 총학생회 선거는 단선을 거듭해 있다. 학생들은 선거마다 선거마다 줄어들어 투표율도 40%를 간신히 넘겼다. 경선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예산보다는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학과·단과·대학원·대학원 학생회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학생들의 대표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전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더워서 요즘 학생들이 대학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대체로 외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대체 더 중요하다. 대체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단순화 후보자를 고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후보자들이 이야기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 “누가 후보에 나오는지 ‘그 후보의 공약은 무엇인가?’ 짐승과 같은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당시 ‘어느 후보의 공약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지’ 혹은 ‘공약이 남았는지’라는 것은 아니지.” 각 후보자들의 공약도 비교해보자.

또한 경선에서는 각각 기본과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것이다. 살펴보면 방법을 비교하는 것은 대체로 힘들다. 예전에는 각 후보자별로 편의점이나 신문보는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투표권을 받는 경우였다.

▲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주에는 각 후보자별로 편의점이나 신문보는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투표권을 받는 경우였다.

편집장

젊은 우리, 기호 1번 후보 백종호·김제동 군을 만나

‘우리 학생회’ 건설에 주력

학생이 중심되어 학내·외 사안 해결해야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학생회에 밤을 덦으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해쳐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선등안 학생회 일을 하며 학생들에게서 ‘내년 학생회…’라는 말들을 들을 때 참 서글펐다.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학생회’를 건설하겠다는 다짐으로 출마하게 됐다.

37대 총학생회를 광기다면?

지난 몇 년간 총학의 모습보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학생들과 학생회의 고리감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은 학생회의 평가는 대부분 공감한다.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해였다고 본다. 삼반기 정기학생총회 때 1400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요구를 실

현시키는 모습을 보며 학생회의 가능성을 봤다. 삼반기 정기학생총회 때 1400여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에 걸집한다는 자신의 요구가 실현된다는 것이 영광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실제 올해에는 눈에 띠게 회고가 바뀌었다. 학내 시안으로 보면 경기의 학·결성이 교체되거나 MIT플래너 등 학생들의 생활 전반적인 곳에 도움을 줬다고 본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하기에는 부족했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하나 끗에 존재한다.

이 동의한 합의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재단공영화를 이룩해 가야한다.

내년 기장 중점적으로 하자고 하는 사업은?

재단문제를 솔직히 해결하고 전회 50주년을 맞아 학생회 위상을 다시금 높이고 싶다. ‘우리 학생회’를 건설하여 언제나 곁에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자 한다. ‘젊어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요구를 실현하려한다.

흔히 운동권·비운동권을 구분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운동권과 비운동권은 굳이 구분해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과 학생회의 관계를 멀게 만든다. 마음을 하나로 풀려고 일을 해내기기에 힘이 드는데 단체로 기르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데 더 힘들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비권을 표방한 후보에 대한 입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래 구설원들이므로 함께 할 수 있는 시안에 대해 대선 신임마든지 함께 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경계짓는 것은 학생들의 화합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당신이 했을 때 한해의 디딤.

학생회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다. 전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선거기본법의 인목으로 학내 시안·학생들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한 것이다. 외래 가시킬 때 대학 기관에 새롭게 대학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재단공영화를

경험신 기자
shini18@hanmail.net

재단공영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재단공영화 문제는 대안으로 학생회를 회생회

비를 넣 필요성은 높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함께 하려는 모습도 부족한 거 같다. 기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도서관 사설화의 경우 학자금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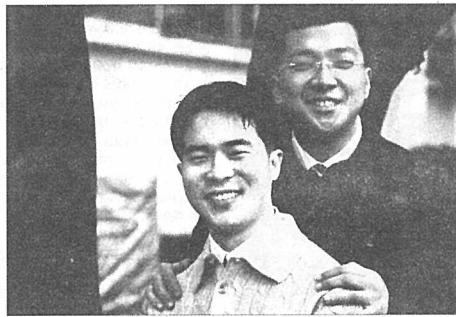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학

생들에게 직접 듣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본다.

기호 2번 후보 웅일환·김태국 군을 만나

학생회개혁 위해 선거 출마

열린 학생회 지향,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 건설하고파



을 펼쳐하는 것인가?

한총련이 전국의 모든 대학장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한총련 주장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비운동권을 표방한 만큼 한총련에 가입한다는 것은 비운동권의 첨예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한총련은 자신과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구조이다. 기업은 학생회장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탈퇴는 학생부표를 통해 해야하기 때문이다. 전국 대학장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되려면 한총련은 스스로 중립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재단공영화에 대한 입장은?

재단구성원은 민주성·도덕성·갖고자 제정적 기여가 많은 친인척이나 한나라당원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재단구성원은 동문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의 합의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올해 안으로 미루리되어야 할 상황이어서 조속히 해결을 해야겠단다.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학생회를 버리고자 학생회에 대한 불만과 이취임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작년 외대 비

민관협상연대를 조직해 학생회 개혁에 대한 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드물 모습은 많이

아쉽다.

기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약은 무엇인가?

학생회 개혁이다. 우리는 열린 학생회를 지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가지는 것이 그렇다. 학생들은 학생회 비를 넣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함께 하려는 모습도 부족한 거 같다. 기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빌어놓을 수

없었다. 도서관 사설화는 학생회를 지원 중에

있었지만 학생회를 부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대학 학생회를 부정한다는 한총련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총련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총련

고성장 기자

dha8272@hanmail.net

각 후보자 선거운동 때라잡기- 14일(금) 동행취재

“이제부터 시작이다”… 각 후보자 강의실 연설에 힘쓴 하루

선거운동이 시작된 14일(금), 두 후보는 각자 맡은 선거운동에 본주한 모습을 보았다.

‘젊음을 내달리다’는 젊은 우리 총학생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백종호·김제동입니다.” 이를 위한 하루 시작은 본주했다. 약 10명 정도의 선거운동분부 학생들은 기호 1번의 선전물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정·부 후보들은 은 수업 시간하기 전 경기실마다 들어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학생회 상을 말하며 학생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했다. 38대 총학생회 회장후보 백종호(서암·네덜란드어 00) 군은 “내년은 외대 견학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외대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흥학생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 있게 늘 가기까지는는 흥학생회를 만들겠다”고 연설했다. 다른 김의실에서는 부총학생 회장후보 김제동(서암·영어교육 99)군이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나누지 말고 학내문제·재단문제 등 우리들의 요구와 지향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박힌 틀은 깨는 시도를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보던 흥지영(서암·불어 02)양은 “얼마나 강의실마다 찾아와 자신의 생각하는 학생회상을 묻는 세심함도 보였다.

말해주니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틈틈이 각 단대 선거운동 본부방을 찾아가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학생들의 호응도도 어려워하는 등은 정부교과학을 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하루종일 학생들을 만나니 더니면 피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총학생회장후보 백종호군은 “저 강의실에서 쉬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양해를 구하고 학생에 대해 저기도 멀리”며 솔직한 모습도 보였다. 기호 1번 후보들은 동아리방을 직접 찾아가서 각 동아리의 불편한 점과 요구사항을 묻는 세심함도 보였다.

같은 날, ‘김동을 주는 학생회’를 기치로 한 기호 2번 웅일환·김태국(상경·경제 97) 조 역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아침부터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있는 학생들에게 연설하려고 강의실을 나누던 것이다. 그렇게 둘다가 적극한 강의실을 발견하고 나를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웅일환군이 들어간다. 나머지 일행은 밖에서 그를 기다렸다. 웅일한군은 교실연설에서 “우리는 비권을 표방한다. 군기질을 하면서도 아직

져 있다. 운동은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아 민족해했다. 인문과학관 강의실 방문을 갔다. 유세를 하려고 했으나 수업을 시작하는 교실이 대부분이었다. 웅일환군이 알고 있는 교수님을 만나 일정을 구하고 교수님은 응해 주었고 다양하고 한강의실에서 연설을 할 수 있었다. 한강의실의 강의실유형을 미친 그에게 강의실 유세 활동에 대해 물어보았다. 강의실에서 듣는 학생들의 태도가 의외로 진지해서 좀 당황스럽다며 “한총련 달회에 대해 언급할 때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놀라는 것 같은 대도였다”고 전했다. 대학부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 후보



젊은 우리
희망을 내달리다

김동을 주는 학생회



정견
토론회

11월 20일(목) 4시

민족자주연
오대화보

기호1번 출마한 윤태호(정보산업대·정보통신공학 96)군 인터뷰

“칠천을 아우르는 학생회로”

25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게 된 등기는?

2003년 한해동안 정보산업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가장 큰 불만이었던 상황변화식 체계를 바꾸고 싶었다. 2003년에는 총학생회와 계약을 맺고 싶었다.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결정되고 중앙집행위원회 중심으로서는 감토하는 정도였다. 현재 학회장을 넘겨둔 상태에서 정말 학교를 바꾸고 싶어 입후보하게 됐다.

24대 총학생회를 평가한다면?

총학생회는 7개 단체와 학생자치기구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4대에서는 총학생회의 사업을 7개의 단체와 학생자치기구도 도와주는 입장이었다. 2003년 한해 정보산업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본 24대 총학생회는 신뢰가 가지 않았다.

기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및 사업은 무엇인가?

포스터에도 나와있듯이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겠다. 모든 과정에 의견함을 설치해 의견을 듣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답변 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부인을 우선하여 사회적 시안에서 등을 놀리진 않겠다. 즉, 사회적 시안은 일상에는 주역하고 '이렇게 하자'는식의 선동은 하지 않겠다. 지금 광장에 사람들을 볼 때 중에 있다.

재단 교통문제에 대한 방안은?

재단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버배포터 총학생회와 같이 연대해서 학생들에게 재단문

제에 대해 알리는데 힘쓰겠다. 또한 용인배움터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스크린스 증차만이 원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이상의 스크린스 증차는 대장 낭비일 뿐이고 그 돈으로 현재 있는 스크린스의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현재 스크린스의 서버배스화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수권제도'가 일반화되면 해결될 것이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실업에 대한 대책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삶 때문에 해결을 위해 플랫폼준비위원회(줄준위)와 취업정보센터 관계자를 만나보았다. 총학생회는 줄준위나 학생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갈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취업우편제도'를 신설하고 '취업특강'과 함께 '우리학교를 알리는 학자를 만들 것이다.

25후보와의 묵직점은 무엇인가?

것은 기존의 학생회의 '노선'은 따라가되 실천은 달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있던 학생회의 물을 완전히 깨고 새로 시작하겠다 것이다. 학생회는 정치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운동하는 비꼰다', 즉 정치적 성향을 담아내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물론 학생운동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물은 새고물에 담는다'라는 우리의 가치가 보여주듯이 '음습배설' 선본은 운동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7000학생을 아우르게 학생회가 되겠다.

동행취재

'또 된다. 자사람' 25대 총학생회선거에 기호 1번으로 입후보한 정후보 윤태호군은 12일(수) 하루동안 밀착취재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도서관 선전을 시작으로 한 그날의 선전 전은 광범 방송이었다. 강의실방문보다 광방 방문에 더 의미를 더하는 윤후보는 '강의실은 얼굴 알리기에서 그치지만 광방에 가면 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과 얘기 할 수 있어서 학생들도 불편한 점들을 숨지 말아놓고요'라고 말한다. 실제로 윤후보는 수첩을 들고 다니며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사항을 경청했다. 광방 방문은 도경 경제학과 광방에 있는 학생들은 '하나밖에 문제에 신경 써달라'고 말하자 그는 수첩에 적으며 '하나밖에 문제를 우선시 하겠다. 만약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더 이상 '내 한 몸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일하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왜 광방이 아니라 나오는 걸 문제에 그는 '질한 기능한 광방을 세워주고 싶다'고 말한다. 지금 학교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으나 '하고 말하며 숨도 채 들리지 못하고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학생회장을 바꿔 보고자 하는 결의로 기득한 사람이었다.

박지혜 기자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후보



악 소 거
레이임



기호2번 출마한 원종관(서유럽·영어 98)군 인터뷰

“실천중심의 학생회를 위하여”

25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게 된 등기는?

후배들에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지금 사업은 24대 총학생회가 필요하다. 당장 내가 누릴 이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배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왕산이 있듯이 나 역시 좀 더 나은 학교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24대 총학생회를 평가한다면?

24대 총학생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체제와 같은 문화행사는 이전에는 다른 준 비평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스크린스문제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24대 때 진행했던 사업이 1학기만 훨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학기 때는 경기대 학생총회가 간접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다른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하는 것은 아иров드 2학기가 시작하자 더 기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재단 교통 문제에 대한 방안은?

재단 교통,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밀해달라 재단문제는 이적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청년에게 학생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아까 말했듯 학자와는 독립적 기구로 세워 재단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를 예상한다. 교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예상, 6번 버스를 확대해 경유하게 만들 생각이다. 그리고 현재 10시 20분 먼저 떠올리는 노선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1학기 안으로 스쿨버스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여 스쿨버스 노선을 청년화 할 생각이다. 청년실업 문제 역시 학자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 부분으로는 학자주권위원회(학자주권)를 독립적 기구로써 구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통한 예산여론을 통해 학생들끼리 직접 예산책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만은 이미 벌써 세미만 준비팀을 꾸민 상

태이다. 기존의 세미만은 어려운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슷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 세미만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로 확장하겠다고 생각한다.

1번 후보와의 묵직점은 무엇인가?

당장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천중심의 학생회'를 건설, 이것만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기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및 사업은 무엇인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크게 예산 부

분과 세미만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 부분으로

는 학자주권위원회(학자주권)를 독립적

기구로써 구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인 현재 예산여론을 통해 학생들끼리

직접 예산책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만은 이미 벌써 세미만 준비팀을 꾸민 상

태이다. 기존의 세미만은 어려운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슷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 세미만은 36개 과 7개

단과가 모두 참여하는 외인인들의 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심 사업은 24대 총학생회

가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좀더 보강할 생각이다. 민족화기에는 학교식단문제를 해결할 것

이다. 물론 생활환경조합 학생위원회가 학교 측에 협조해 전면 투쟁에 나서서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학교식단문제는 모현의 비판

물기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

한다.

재단 교통,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밀해달라

재단문제는 이적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청년에게 학생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아까 말했듯 학자와는 독립적 기구로 세워 재단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를 예상한다. 2학기 때는 경기대 학생총회가 간접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다른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하는 것은 아иров드 2학기가 시작하자 더 기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5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원종관

원종관(서유럽·영어 98)군 인터뷰

정후보와의 묵직점은 무엇인가?

당장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

만 '실천중심의 학생회'를 건설, 이것만은 확

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기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및 사업은 무엇인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크게 예산 부

분과 세미만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 부분으로

는 학자주권위원회(학자주권)를 독립적

기구로써 구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인 현재 예산여론을 통해 학생들끼리

직접 예산책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만은 이미 벌써 세미만 준비팀을 꾸민 상

태이다. 기존의 세미만은 어려운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슷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 세미만은 36개 과 7개

단과가 모두 참여하는 외인인들의 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심 사업은 24대 총학생회

가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좀더 보강할 생각이다. 민족화기에는 학교식단문제를 해결할 것

이다. 물론 생활환경조합 학생위원회가 학교

측에 협조해 전면 투쟁에 나서서 못하는 부

분이 있었다. 학교식단문제는 모현의 비판

물기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

한다.

재단 교통,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밀해달라

재단문제는 이적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청년에게 학생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아까 말했듯 학자와는 독립적 기구로 세워 재단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를 예상한다. 2학기 때는 경기대 학생총회가 간접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다른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하는 것은 아иров드 2학기가 시작하자 더 기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5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원종관

원종관(서유럽·영어 98)군 인터뷰

정후보와의 묵직점은 무엇인가?

당장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

만 '실천중심의 학생회'를 건설, 이것만은 확

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기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및 사업은 무엇인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크게 예산 부

분과 세미만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 부분으로

는 학자주권위원회(학자주권)를 독립적

기구로써 구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인 현재 예산여론을 통해 학생들끼리

직접 예산책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만은 이미 벌써 세미만 준비팀을 꾸민 상

태이다. 기존의 세미만은 어려운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슷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 세미만은 36개 과 7개

단과가 모두 참여하는 외인인들의 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심 사업은 24대 총학생회

가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좀더 보강할 생각이다. 민족화기에는 학교식단문제를 해결할 것

이다. 물론 생활환경조합 학생위원회가 학교

측에 협조해 전면 투쟁에 나서서 못하는 부

분이 있었다. 학교식단문제는 모현의 비판

물기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

한다.

재단 교통,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밀해달라

재단문제는 이적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청년에게 학생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아까 말했듯 학자와는 독립적 기구로 세워 재단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를 예상한다. 2학기 때는 경기대 학생총회가 간접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다른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하는 것은 아иров드 2학기가 시작하자 더 기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5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원종관

원종관(서유럽·영어 98)군 인터뷰

정후보와의 묵직점은 무엇인가?

당장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

만 '실천중심의 학생회'를 건설, 이것만은 확

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기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및 사업은 무엇인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크게 예산 부

분과 세미만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 부분으로

는 학자주권위원회(학자주권)를 독립적

기구로써 구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인 현재 예산여론을 통해 학생들끼리

직접 예산책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만은 이미 벌써 세미만 준비팀을 꾸민 상

태이다. 기존의 세미만은 어려운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슷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 세미만은 36개 과 7개

단과가 모두 참여하는 외인인들의 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심 사업은 24대 총학생회

가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좀더 보강할 생각이다. 민족화기에는 학교식단문제를 해결할 것

이다. 물론 생활환경조합 학생위원회가 학교

측에 협조해 전면 투쟁에 나서서 못하는 부

분이 있었다. 학교식단문제는 모현의 비판

물기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

한다.

재단 교통,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밀해달라

재단문제는 이적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청년에게 학생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아까 말했듯 학자와는 독립적 기구로 세워 재단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를 예상한다. 2학기 때는 경기대 학생총회가 간접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다른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하는 것은 아иров드 2학기가 시작하자 더 기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5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원종관

원종관(서유럽·영어 98)군 인터뷰

정후보와의 묵직점은 무엇인가?

당장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

만 '실천중심의 학생회'를 건설, 이것만은 확

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기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및 사업은 무엇인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크게 예산 부

분과 세미만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 부분으로

는 학자주권위원회(학자주권)를 독립적

기구로써 구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인 현재 예산여론을 통해 학생들끼리

직접 예산책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만은 이미 벌써 세미만 준비팀을 꾸민 상

태이다. 기존의 세미만은 어려운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슷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 세미만은 36개 과 7개

단과가 모두 참여하는 외인인들의 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심 사업은 24대 총학생회

가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좀더 보강할 생각이다. 민족화기에는 학교식단문제를 해결할 것

이다. 물론 생활환경조합 학생위원회가 학교

측에 협조해 전면 투쟁에 나서서 못하는 부

분이 있었다. 학교식단문제는 모현의 비판

물기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

한다.

재단 교통,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밀해달라

재단문제는 이적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청년에게 학생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아까 말했듯 학자와는 독립적 기구로 세워 재단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를 예상한다. 2학기 때는 경기대 학생총회가 간접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다른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하는 것은 아иров드 2학기가 시작하자 더 기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5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원종관

원종관(서유럽·영어 98)군 인터뷰

정후보와의 묵직점은 무엇인가?

당장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

만 '실천중심의 학생회'를 건설, 이것만은 확

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기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및 사업은 무엇인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크게 예산 부

분과 세미만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 부분으로

는 학자주권위원회(학자주권)를 독립적

기구로써 구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인 현재 예산여론을 통해 학생들끼리

직접 예산책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만은 이미 벌써 세미만 준비팀을 꾸민 상

태이다. 기존의 세미만은 어려운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슷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 세미만은 36개 과 7개

단과가 모두 참여하는 외인인들의 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심 사업은 24대 총학생회

가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좀더 보강할 생각이다. 민족화기에는 학교식단문제를 해결할 것

이다. 물론 생활환경조합

외대학보 840호 비평

총학을 평가하며 평가받은 지난 호는



매년 이맘 때면 온 학교가 선거운동으로 들끓었다. 학생회 선거철을 앞두고 지난 840호 주제기획에서는 양계에서 총학생회를 평가하고 학생회 상을 제시했다. 여태껏 총학생회 선거기획이 되면 으레 지난 학생회를 평가하고 새로 나온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했지만 이번 호에서는 (외대학보)가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회 상을 제시한 것이다.

설문에 조차 응하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상상 밖이었다. 총학에서 내건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느끼는 대로 표시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였다. 총학생회에 관심없거나 다른 학생한테 가보는 말을 듣고나니 설문지를 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새삼스레 그들의 사업을 잘 알아내지 못한 이유인지 학생들이 그만 학교에 무관심하다는 증거이다.

4년에 걸친 암 터미널에서 총학생회의 평가는 전적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인 설문지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한 학생은 “서울대배움터 총학생회에 대한 해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며 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대배움터 인터뷰와 평가를 따르고 응원해온다는 감

이 써 학식분야에서, 외간인 차수를 둔 것에서 나온 것이다.

강경신 기자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기립박수 -

학생회 파이팅~ +_-+



수고했다. 고생했다. 유틸리티
- 외대학우-

올해 세로 편지는 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 예외대학-

아파~ 진짜 1년 동안 거기시기 했

- 전리도 학우-

자~ 힘들자?

-박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퇴 -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수고했어요

-오마케이-

제목 : “1년동안 수고한 과, 단대, 총학, 등 이리 일한에게 한 미다...”

의대에서 정을 나누며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다모페인-

후회는 없었소?

-난 있었소-

아고とうござります。Hvala, Спасибо.

Danke

Thank you, Merci beaucoup

-HUGS-

-오마케이-

혹사의 소리

과연 외대일보는 대학정론지인가?

보수언론들의 노동자 마녀사냥

글을 봅니다
자기 외대학보 교수, 학생, 직원 모두 주제 제한 없음 / 획수 : 200자 원고자 4명 미만 / 매주 금요일 자정
등록방법 : 회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edanpress@hot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급하는 부분이나 비판은 절을 예상된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문은 본지는 소유의 저작권을 드립니다.

[출판] (RFSnet)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과 외대학보입니다.

작년 주에 애내에 배포된 ‘외대일보’라는 신문을 봤다. 우선 보통 우리가 접하는 일간지와 비슷한 면수인 40면으로 밝혀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외대일보’라는 제호를 보고 와 대를 나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나 또한 외대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에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과연 이 신문은 누가 발행했으며 어떠한 내용이 실려있을까? 이러한 호기심으로 외대일보를 한 부를 살피고자 했지만 외대일보를 읽어보니 그런 주제를 위한 기사가 없다. 보통 잡지에서나 보듯 ‘과연 이것이 신문이 맞다?’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대학 정론지라고 외대일보에서 서 말하는 것은 어떤가? 하지만 한 번 한 번 읽어 보면 그야말로 외대인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사는 전혀 없다. 이것을 봤을 때 외 ‘외대일보’라는 제호를 짓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외대일보를 위한 기사가 부재하던 ‘외대일보’라는 기사를 쓴 것은 외대인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사였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이 든다.

첫째, 외대일보라는 외대일보사 내에서 기획하고 취재한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니라 한다.

거의 내용을 보면 일간지와 월간지 등에 실린 기사에 대한 기사를 재작성하여 있으며 이는 꼭 우리 리에 말하는 ‘짜깁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신문인가? 보통 일간지를 보면 연합통신 등에서 따른 기사를 몇몇 실고 있다. 하지만 외대일보처럼 전면에 다 내는 경우는 없다. 과연 이것이 외대일보사가 말하는 대학정론지인가?

둘째, 신문에는 광고가 중요하다. 광고는 신문을 재작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정에 도움을 준다. 외대일보 또한 그런 경우라고 본다. 외대일보를 보면 매번마다 광고가 들어가 있다. 또한 40면에는 전면광고가 들어가 있다. 이것을

봤을 때 광고수익이 많았으리라 본다. 여기서 드는 의구심은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짜깁기 불과한 기사를 내놓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외대인을 위한 기사가 부재하다. 제단 공동체와 외인사회의 활동에 대한 기사(그리고 거의 기자님의 일상과 같은 기사가 아닌 책상앞에서 내용을 접한 기사)를 볼 수 있다. 외에 외대인을 위한 기사가 없다. 보통 잡지에서나

나는 건 폭력이 아니고 집회 때 날아가는 화염병은 폭력인가? 수수께끼 언론들은 미처 기다렸

다는 듯이 일제히 사설 면에 노동자들의 불법 폭력 시위, 화재 시위 등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실으면서 그렇게 된 배경이나 외인마저 노조총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급급다. 월수입 7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고파 못살겠다는 호소를 엮어지자 매도해 버리는 이 나라에서 과연 악자인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법과 정의에 호소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의문이다.

주 익숙 (동화기, 뮤니케이션)

이라크 파병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라크파병이 공공연하게 된 지금, 우리가는 력이 있음을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 보여 주었다. 물론 미국이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방국이라는 점을 들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파병을 약속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점은 무엇인가? 비록 전투부대에 이긴 하지만 전투보다는 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일산에서 진행하는 공방 또한 전투부대의 한 동지이므로 미국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리와의 다른 일은 속속적으로 이어지던 않을 것이다. 디사밀리에, 이라크 전투부대 파병을 공방부대 파병으로 틀리는 것이 현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것이다.

박성제 (자연·환경 99)

이승준
(자연·전자물리 97)

며수당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청구와 노동기본권의 제약



이정
(법과대학 교수)

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제33조 1항에서 노사간의 대립한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조에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면밀로기는 행정행위의 주체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노조법 제33조, 한법상의 행정권은 매우 재한적으로 행사되어 수락에 없다.

이에 많은 노동단체들은 한법상의 노동3권을

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 제33조에서는 사용자가 파업으로 인한 경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의 행사(파업)을 원천적으로 봄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용자가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면밀로기는 행정행위의 주체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노조법 제33조, 한법상의 행정권은 매우 재한적으로 행사되어 수락에 없다.

이에 많은 노동단체들은 한법상의 노동3권을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면밀로기는 행정행위의 주체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노조법 제33조, 한법상의 행정권은 매우 재한적으로 행사되어 수락에 없다.

이에 많은 노동단체들은 한법상의 노동3권을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노동권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보호·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응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의 요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금은 달리, 불법한 면밀로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정이나 임금교섭 또는 조합

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의권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조속히 폐지가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행정행위(파업으로 인한

